

“청년·신혼부부 살기 좋은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



구북구 화순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전국적 관심 끈 '만원 임대아파트' 다음달 말 2차 50호 공모 진행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산업 육성 3대 분야 2년차 중점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만원 임대주택’과 다문화 가정을 보듬는 ‘다문화 전담팀’ 등 화순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이어가며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은 구북구 화순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부자 농촌’ ‘백신’ 등 3대 분야 발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화순 인구는 6만1680명(3만2128세대)으로, 전남지역 군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올해 군 예산으로 7505억원을 확보하며 전남지역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다.

화순군은 ‘2023 정부 합동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해 민선 8기 성과를 인정받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1차 공모에서 10대1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화순군은 4년

동안 총 400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2차 공모(50호)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화순직책 진입로 관리권을 광주시로부터 받아오며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만든 화순군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 팜’은 올해 들어 매출액 8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매출 10억원 달성을 일찍 접하게 됐다. ‘화순 팜’에는 농업인과 업체 100곳이 활동하며 300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화순읍에 민원충장소를 열고 읍·면장실 1층 이동, 마을 주치의 제도,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사업 등 지역민에 밀착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구 군수는 정례 조희 때 ‘직인 5분 스피치’를 새로 만들고, 직원에 참여하는 ‘화순군정뉴스’를 제작하며 내부 소통도 강화했다.

구 군수가 민선 8기 2년 차에 중점 추진할 분야는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공원하고, 권역별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실현할 계획을 세웠다.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콩·블루베리·사인머스캣·토마토·복숭아 등 지역 특화작목을 확대한다.

청년과 은퇴자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자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한다.

화순군은 ‘바이오 백신 산업 특구’를 확대해 백신 산업을 성장장 미래 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화순 광업소와 폐광하면서 화순군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백신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백신 특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29%(1만7927명)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에 사업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화순읍 권역 6개·동부권역 6개·서부권역 6개 등 3개 권역 총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권역 대표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한 ‘화순 천릿길길’ 조성사업이다.

또 문화·관광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개미산 전망대’ ‘남산 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제2 생활의약단지’ ‘그린 스마트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동부권에서는 화순직책(이서면)을 명소화하고, 동북면 연리지 숲정이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 방침이다. 서성재 환상정 관광지, 서성리 농촌 공간 정비, 오동리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 동면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권에서는 능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능주), 고인돌 사계절 축제(도곡·춘양면), 운주사 사계절 공원(도양면), 개천산 역사·문화자원 개발(도양·춘양면), 이양면 홍수조절지 생태공원 조성(81홀 파크골프장) 등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민선 8기 화순군은 총 7대 분야·8대 추진전략·68개 실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미래 사업인 문화관광·부자 농촌·백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00만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전남 관광 1번지 화순,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제9대 합평군의의회 개원 1주년... ‘군민 속으로 한걸음 더’

110일간 회기... 204건 의안 처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합평군의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제9대 합평군의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변화된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발맞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수립했다.

합평군의의회는 개원 이후 1년 동안 총 10회, 1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지역경제·인구소멸·주민복지 등 분야에서 20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총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1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 99건, 규칙 2건, 승인동의 28건, 기타 67건 등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낡았 안전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등 대외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두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02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종료된 제283회 합평군의의회



윤영랑(가운데) 합평군의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평군의의회 제공>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14개소의 현장을 발로 뛰어 살폈다.

군의의회는 앞으로도 지방분권 2.0 시대에 발맞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랑 의장은 “지난 1년 합평군의의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합평의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합평군의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군 공공청사 17곳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담양군이 공공청사 17곳에 특색있는 건물 번호판을 달았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획일적인 번호판과 달리 모양과 크기, 재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권장하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담양군은 군청사와 지속 기관, 사업소, 읍·면 사무소 등 17곳에 먼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한옥인 장평면사무소의 경우 번호판을 나무로 만들고, 위쪽에 은은한 간접 조명을 달았다.

담양군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학교, 우체국 등



담양군청에 설치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공기관과 죽녹원, 기사 문학관 등 관광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은 여름과 겨울에 개최해오던 청자축제에 봄방학이 있는 2월 말로 개최 시기를 변경해 10만 6000여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청자축제 모습.

‘축제 끊이지 않는 강진’ 성공... 상반기 관광인파 몰렸다

청자축제·병영불금불과 등 주목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진군의 전략이 호평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열린 ‘수국길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강진청자축제, 전라병영성축제, 월출산봄소풍축제, 병영불금불과 등이 모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량농도수산물 장만을 남기고 상반기 모든 축제는 끝났다.

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해왔다.

올해 축제 시작은 청자축제였다.

여름과 겨울에 개최해오던 청자축제를 봄방학이 있는 2월 말로 개최 시기를 변경해 강진 인구의 세 배가 넘는 10만 6000여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

았다.

‘흙 사람, 그리고 불’을 테마로 열린 청자축제는 ‘정자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눈썰매와 썰라인 등 6개 분야 44개 단위 행사를 준비해 강진에 대한 학습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민간인 금곡사 빛꽃 삼십리 길의 강력한 흥행 요소 갖춘 금곡사 빛꽃축제와 함께 병영면에서는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렸다. 두 축제는 당초 따로 개최했다.

두 축제에 누적 9만여 명이 찾아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본격적인 춘사월에 열린 월출산 봄소풍축제는 10만 명 규모의 녹차밭에 조성 3대 정원 중 하나인 백운동 원림, 자연이 빛어낸 월출산 경도대를 무대 삼아 그림 같은 풍경 속 힐링을 선사했다.

봄소풍 축제의 ‘어느 봄날의 브런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에서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또다시 성

공의 기록을 추가했다.

시즌 1을 끝낸 병영불금불과는 인구 1600명의 작은 병영면에 주말이면 평균 1000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며 생활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큰 바람을 일으켰다.

5월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8000명이 찾았다. 불금불과는 7, 8월 두 달간의 휴지기를 갖고 가을에 시즌2로 관광객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올해 첫선을 보인 ‘강진 수국길축제’는 이틀간 1만6000여명이 방문했고 흥진 않은 수국 앞에서 웨딩 촬영은 젊은 연인부터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큰 인기를 끌며 보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모두의 노력을 발판 삼아 대거 관광객을 유입해 인구 늘리기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 축제 준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 도비 예산 3억원 확보

강진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내 공유문화 인식을 확산하고 공유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자전거 정책의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관광지 내 자전거 구입, 자전거 대여소·보관 거치대 설치, 자전거 여행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영면 한골목길 내에 자전거를 활용한 골목길 투어도 운영한다.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병영시장 행사에 자전거 투어를 연계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내 주요 관광지에 자전거 대여소를 조성해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물론 자전거 여행 방문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김성(오른쪽 두번째) 장흥군수가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홍익표(왼쪽 세번째) 국회의원을 찾아 ‘대안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유치’ 건의문을 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장애인 해양스포츠 선수촌 유치 나서

김성 군수 국회 찾아 건의

장흥군은 최근 김성 군수가 국회를 찾아 남부권 장애인 해양스포츠 선수촌을 유치하기 위한 건의문을 달고 5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과 이용호 의원, 홍익표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장애인 전문 남부권 해양스포츠 선수촌을 유치해 지역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장애인 해양스포츠 부문에서는 카누·조정 훈련장 등 수상종목 전용 훈련장이 없는 상황이다.

장흥군은 팔림림길 109번 도약과 해양스포츠

강국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에 장애인 해양스포츠 선수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가 가능해진다. 조정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수상 마라톤 등 종합 해상 훈련장 시설 등도 선수촌 시설에 포함된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중심지로 발돋울 수 있도록 지8억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